

농촌사랑 자매결연 성동3리 ↔ 청미원(주)

1사1촌 자매결연 편의시설 준공·사과수확 봉사

청미원(주) 임직원 40여명은 11월3일 오전 9시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동3리 류촌중시 사과농장에서 사과수확에 나섰다.

마침 농협중앙회에서 이 마을에 1천800만원을 지원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마련해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한 편의시설은 농촌사랑운동 활성화계획에 따라 1사1촌 자매결연마을에 대한 소득지원 발굴 지원사업으로 원두막, 체험장,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매결연 교류활성화는 물론 마을 주민의 농촌사랑운동 자율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도농 교류를 통한 소득증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다. 여기에 청미원(주)에서는 식당에 노래방시설을 기증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안남근 영중농협 조합장은 "맑고 공기 좋은 포천 하늘 아래 오늘 하루 재미있게 사과수확도 하여 사과 맛도 보시고 앞으로 이 곳을 가족들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중노 청미원(주) 대표이사는 "오늘 일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날 인만큼 정성과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성동3리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우리 청미원도 함께



포천시 영중면 성동3리는 청미원(주)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1촌 자매결연 편의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위상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전국적 모범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스공항 사회산리 찾아 봉사활동

1사1촌 자매결연 맺고 4천여만원 농산물 구매



아스공항은 영북면 사회산리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촌봉사 활동을 펼쳤다.

금호그룹 계열 아스공항 노조는 상안과 원장 등이 지난 6일 포천시 영북면 사회산리 마을을 찾아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맑은 세상안과 류석찬 원장 등은 의료 소외지역인 사회산리 마을 주민 30여명의 시력검사와 간단한 시술 등을 실시했다. 또 아스공항 노조원들은 농산물 수확 등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농촌체험을 하기위해 이곳을 찾았다.

아스공항은 2006년11월 영북농협 주선으로 사회산리와 1사1촌을 맺고 올 봄과 여름 40여명이 3차례에 걸쳐 사회산리를 찾아 불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아스공항 직원들은 사회산리에서 생산되는 쌀과 옥수수, 토마토, 딸기 등 4천여만원치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상은 영북농협장은 "아스공항 임직원들은 1사1촌을 맺은 이후 봄과 여름, 가을에 사회산리를 찾아 온 것만해도 고마운데 농산물을 구매해 줬다"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자주 찾아와야 농촌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남 기자 forme65@paran.com

행복한 보험이야기 · 13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한 사람의 일생은, 출생해서 성장 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녀양육, 자녀 교육, 은퇴, 노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즉 자녀에서 부모로, 학생에서 직장인이나 주부로 역할만 바뀔 뿐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흐름은 연속적이다. 결국 재테크는 인생의 중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화두인 것이다.

젊은 때는 종자돈을 마련하고 중년에는 재산을 불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형 씬을 제대로 알아야 전락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20~30대의 결혼 30~40대의 내 집 마련 및 자녀 교육 등이 대형 소비에 속한다. 그렇다만 비과세 상품, 펀드,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주식, 채권 등 수많은 금융상품 가운데에 있는 것을 골라가 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까? 과거와 다른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테크는 물론이면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겸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지 않을까?

과거의 재테크는 고금리, 확정금리의 저축, 단기투자/직접투자, 예적금 등으로 돈 불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등의 이자로는 재테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적배당을 하는 투자상품에 눈을 돌리며, 장기투자 와 간접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현재의 재테크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변액보험과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이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노후대비에 실천해야 할 지침을 마련해 보자.

우선 20대는 노후준비에 기회가 아주 많은 세대이다. 작은 씨앗으로 큰 마니트리(money tree)를 키울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로 종자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

다. 돈투서는 줄 깨닫고, 허영이 나 붙에 넘치는 욕심을 먼저 제아한다. 소비자체 비율은 20% 내외로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출 조절이 필요하다. 돈은 곧 마니트리를 만들기 위한 씨앗임을 명심할 것! 20대 월급 100만원 ~ 40대 월급 387만원 ~ 60대 월급 500만원?

20대에 받는 월급은 축복의 씨앗이다. 씨앗은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조금씩 자라나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마니트리가 된다. 현재의 만족(명품, 자동차등)을 위해 1,500만원의 연금월액을 포기할 것인가? 20대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투자)할 것을 당부한다.

20대는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한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수입창출이 가능하다.

20대에 공부하지 않으면 30대 이후에 후회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필요

자금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운다. 고수익상품과 원금보존 추구형 상품을 적절히 혼합한다.

평생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저축형 보험과 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사람, 질병 등의 위험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 보험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펀드 등 고투고투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20대에 고려할 만한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부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연금신탁/세제적연금, 변액종신, 정기, 질병보험, 주식형 적립신탁 등

30대부터는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음향가든

“메기와 장어가 함께하는 건강식”



대표 전영숙

내촌시내에서 서울방향 47번 국도로 약 2Km 정도 가다 보면 광릉CC 맞은편(38번 종점)에 위치한 음식점 한곳을 만날 수 있다.

포천시 모범 음식점으로 방송과 언론 등의 매체에 맛있는 집으로 소개된 곳이다. 이 곳이 바로 풍부한 영양가를 자랑하는 장어와 메기를 주 메뉴로 취급하는 음향가든(포천시 내촌면 음향

리 576, 대표 전영숙)이다. 처음 위 장소에서 피로 파는 막걸리와 두부, 파전 등을 취급하며 고객들을 유치해오다가 코알라 대리점과 농심 대리점 영업을 거쳐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음향가든을 운영해오며 독특한 손맛으로 고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어는 예로부터 귀한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식품이었으나 요즘은 많은 곳에서 양식이 활성화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음향가든이란 상호로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영업을 하다보니 단골손님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대표는 단골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의 입에서 언제나 맛이 변함이 없으며 꾸준하게 이 곳을 찾아온다고 한다.

친정과 시댁이 같은 내촌 이라고 말하는 전 대표의 “친정 아버지님과 시아버님이 친구사이로 지금의 남편(전 시의원 김영대)과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며 “결혼 이후로 대표집과 식품 대리점 영업,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음향가든에서 둘째 아들 출생이후 줄 곳 영업을 해왔다. 오랜 기간동안 음식점을 해오며 도중에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변함 없이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과 지금 하는 직업이 천직인 것 같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어구이와 메기 매운탕 전문점 음향가든은 광릉수목원, 광릉CC, 베이스 타운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소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관광이나 운동 후 위 곳에서 여정을 끝 다음 고객 개개인의 입에 맞는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는 것도 편할 듯 싶다.

토속적이면서도 모든 고객이 선호하는 밑반찬 고객 개개인의 입맛에 걸 맞는 맛있는 음식 제공

음향가든은 상품가치가 높고 씨알이 좋은 엄

약 문의: 031)532-2525, 252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음향가든에서 장어와 메기의 얼큰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볼 수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의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 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

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인정을 해 준 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도록 하자.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상속세를 추징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894 ~ 4897/4502 ~ 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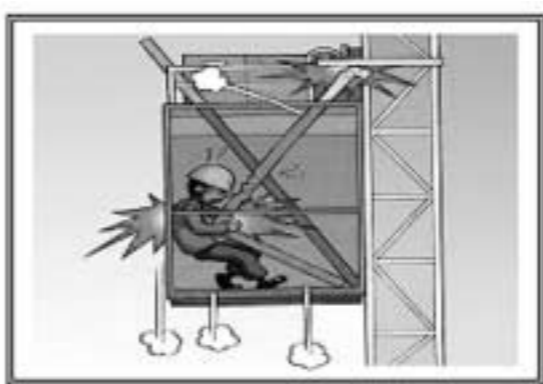
리프트 내의 적재자재가 마스트 지지대에 충돌·협착

▶해해발생 개요

○ 2006년 11월 20일 OO 추상박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커튼월공)인 피재자가 외부창호프레임 자재를 인양하기 위해 리프트에 자재를 신고 5, 6층으로 이동 중, 리프트 상부의 비상출입구에 돌출되어 있던 창호프레임 자재가 리프트 마스트 지지대에 걸려 자재가 휘어지면서 자재 옆에 탑승한 피재자가 협착, 치료 중 12월에 사망한 재해임.

▶해해발생원인

가. 자재형상을 고려치 않은 인양작업 실시
○ 건물외부 마감 작업용 자재인 창호프레임의 길이 등 자재형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리프트 상부 비상출입구 외부로 창호프레임을 돌출하여 인양작업 중 재해발생.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재인양 작업방법 변경
○ 건물외부 마감 작업용 자재인 창호프레임은 리프트 안에 실리지 않는 크기 이므로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안전한 인양 방법으로 변경하여 작업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무엇 이 다른가?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32만 4000원, 개인연금은 100만원 수익률,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다

국민연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 '국민연금'이라는 기본 노후 대비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도입했다. 반면 개인 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연금과는 별도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추가적인 노후유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는 의미로 1994년부터 시행됐다. 안전성, 실질가치 보장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나 수익률에서 국민연금이 개인 연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월 보험료의 최고액이 32만 4000원인 반면 개인연금은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실질가치가 철저히 보장되나 개인 연금은 실질가치보장이 미흡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보장적 성격의 유족, 장애연금도 지급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익률은

민간 개인연금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민간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개인연금은 5% 미만인 반면, 국민연금은 2004년부터 20년 가입 시 6.45~14.21%까지로 개인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노후소득보장뿐 아니라 해해서도 상당한 보상(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어 민간 보험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가입이 의무화 되어 사보험과 같이 판촉비용이 필요 없고 영입이윤을 남기지 않으며 후세대의 지원도 일정 부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고의 노후대비용상품으로 떠올랐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